

# 해외 취업 간호사의 나이듦: 파독간호사를 중심으로

김학선<sup>1</sup> · 홍선우<sup>2</sup> · 최경숙<sup>3</sup> · 이애주<sup>4</sup>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sup>1</sup>,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전임강사<sup>2</sup>,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up>3</sup>, 국회의원<sup>4</sup>

## Ageing Experiences of Nurses with Overseas Employment: Focusing on the Korean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in the 1960s and 1970s

Kim, Hack Sun<sup>1</sup> · Hong, Sun Woo<sup>2</sup> · Choi, Kyung Sook<sup>3</sup> · Lee, Ae Joo<sup>4</sup>

<sup>1</sup>Researcher, Nursing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sup>2</sup>Full-time Instruct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Department, Daejeon University,

<sup>3</sup>Professor, Nursing Department, Chung-Ang University, <sup>4</sup>Assemblywoman,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Purpose:** Global shortages in nursing and strong demand for nursing services provided Korean nurses with more overseas employment opportunities, especially in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ageing experiences of the Korean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in the 1960s and 1970s. **Methods:** The researcher interviewed 10 Korean nurses living in four cities in Germany. Interviews were performed twice in January and July, 2010, and the data, in the form of field notes and interview transcripts, were analyzed using the Agar's (1980) ethnographic method. **Results:** The ageing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theme stages: coming upon old age, reluctantly realizing getting old, and finally accepting being old. The first stage is characterized by 'wiring money to homeland all throughout youth,' second 'still feeling like a stranger anywhere,' and finally 'burying homeland in heart.' **Conclusion:** The research findings not only suggest crucial materials for training prospective nurses overseas for their successful settlement, but also shed lights on related problems and solutions with ageing experience in overseas employment.

**Key Words:** Nurses, Overseas employment, Ageing, Ethnography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들에게 있어서 해외취업은 인기있는 관심분야이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정진중인 많은 학생들도 해외취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 대학의 간호학과는 해외취업반을 운영하거나 혹은 해외취업과 관련한 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학생을 모집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

계는 해외취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해가 다르게 간호학과 졸업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간호를 제공하는 장소가 병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너싱 홈 등의 지역사회로 다양해졌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및 그에 따른 간호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고급 간호인력의 국내흡수는 곧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전 세계적인 간호사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간호사의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Song, 2006)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심각

**주요어:** 간호사, 해외취업, 나이듦, 문화기술지

**Address reprint requests to:** Hong, Sun Woo,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Daejeon University, 96-3 Yongun-dong, Dong-gu, Daejeon 300-716, Korea. Tel: 82-10-2084-7208, Fax: 82-42-280-2946, E-mail: swhong@dju.kr

투고일 2011년 8월 12일 / 심사완료일 2011년 8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1년 8월 21일

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외국간호사의 채용을 증가시키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분야를 포함한 시장개방 논의를 본격화시킴으로써(Hong, Yoon, & Kang, 2004) 간호인력의 국제적 이동 및 해외취업은 더욱더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간호사의 해외취업 역사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정부개입 하에 이루어진 파독간호사가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직종의 집단 해외취업으로서 여성 전문직의 파견이라는 점에서도 독특한 사례이다. 당시 독일은 순수한 노동력만을 사고자 했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손님노동자(Gastarbeiter)로서 독일사회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왔다가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손님의 지위로 체류의 한계를 정해 놓았다(Kim, 2004; Na, 2009). 그러나 많은 수의 간호사들이 초기 3년, 최대 5년 계약 종료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체류연장 허가 또는 이주민으로서 장기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였으며 그중 대다수의 간호사들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정년을 앞두고 있다(Kim, Hong, & Choi, 2009; Lee & Park, 2006).

해외취업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간호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해당국가에서 원하는 수준의 간호 지식과 임상기술 등의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 및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Buchan, 2003; Song, 2006). 한편, 해외취업에 성공하고 해당국에서의 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후에는 전문직으로의 적정기간 일을 하고 정년이나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취업과 적응이 단기적인 문제라면 정년과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나 간호학생들은 해외취업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성공적인 정착과정이나 은퇴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하였으며, 단기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과 정보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적인 문제에 관한 정보나 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파독간호사의 경우도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파견되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취업의 선구자인 파독간호사 중에서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파독간호사들의 노년의

삶을 심층면담하여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해외에 취업한 간호사들의 나이들 내지는 나이 들어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년과 은퇴 관련하여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해외취업을 꿈꾸는 많은 후배 간호사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바람직한 노후와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해외로 취업한 간호사중 독일에 거주하는 간호사들의 나이 들어감의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Agar (1980)의 문화기술지 분석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는 문화인류학에서 발달한 연구방법으로서 특정 문화집단의 인간행위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행위의 양상과 그 이유를 기술한다. 'Ethno'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graphy'는 이러한 삶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석적으로 묘사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문화기술지 연구는 연구대상과 호흡을 같이 하며 그들 세계의 실제적 삶의 경험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적인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Cho, 2005). 이처럼 문화기술지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에 대하여 학습하는 과정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를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특정 문화집단인 독일거주 파독간호사들의 생각과 경험을 탐구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2. 자료수집

#### 1) 연구참여자의 선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1960~1970년대에 파독되어 현재까지 독일에서 살고 있는 간호사 10명이다. 해외취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삶의 방식은 연령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경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60세(56~68세)였고, 파독 당시 평

균연령은 24세였으며 평균 독일 체류기간은 36년이었다. 참여자중 3명은 이미 은퇴한 상태였고 나머지 참여자는 아직 현직에 있었다. 배우자가 한국인은 참여자는 2명이고 나머지 참여자 8명은 독일인과 결혼한 상태였으며, 2명의 참여자는 이혼한 상태였고, 대부분 1~2명의 자녀를 두었다.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진행을 위하여 C 대학교 의과대학 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을 받았다(No. 2010-07-01). 자료수집 전에 연구자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간략히 설명한 후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개인 심층 면담을 하였다.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모든 자료가 익명으로 처리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외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고, 연구 중 참여자가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밝힌 후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0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본, 뮌헨 및 함부르크 등 4개 도시 방문을 통해 반구조적 형식의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편한 곳으로 정하여 연구자의 집이나 호텔 라운지, 카페 등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면담은 1인당 1~2회 시행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참여자에게 제시한 면담질문은 4명의 공동연구자가 논의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하였고, 필요한 사항은 메모하였다. 면담 시 연구자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듣고자 하였으며 초기 면담은 편안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라포를 형성하였고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참여자의 경우 살고 있는 가정을 직접 탐방하여 이들의 생활을 관찰하여 현장 메모를 작성 하였다. 면담 후에는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의도를 연구자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서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음은 면접에서 사용한 질문들이다.

주 질문: “해외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조 질문: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어떠십니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언제 느끼십(셨습)니까?”

“해외에서 나이 들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후배간호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3. 자료의 분석과 타당성 확보

필사된 자료와 메모, 현장 노트는 Agar (1980)의 분석단계에 따라 사건, 주제, 적용 등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녹음자료를 옮겨 적은 필사본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요 사건을 찾아내어 각 사건에 대한 의견과 설명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분석은 첫 단계에서 발견된 주요사건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표현한 견해와 설명에서 주제를 찾는 과정으로 주요사건과 주제를 찾아 주제별로 묶어서 공통된 상황적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하위주제는 노년의 삶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간의 흐름 순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제모음은 그러한 시간(시대)에서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행간에서 골라냈다. 이 같은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나이 들어감에 대한 주요 기틀을 세웠다. 세 번째 단계의 분석은 지금까지 찾아낸 주요 사건과 주제를 가지고 참여자 중에서 심도있는 인터뷰가 이루어진 참여자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면담자의 확인을 받았다. 통찰성을 얻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탐색하였다. 심층적 고찰을 위해서는 다른 사례 및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심사숙고하고 비교하여 연구결과를 재검토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진실성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는 이해된 결과를 새로운 방향이나 다른 방향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세 가지 인식론적 가치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Stewart, 2003).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4명의 연구자중 한 연구자는 문화기술지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다른 2명의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강의하거나 질적 연구방법으로 학회지에 다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연구자 모두가 지속적으로 질적 연구와 관련된 학회와 학술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탐구와 연구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파독간호사업 평가 및 정책 입안에 참여한 현장 실무자의 연구참여로 인해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었다.

## 연구결과

자료분석을 통해 도출된 독일거주 간호사들의 나이들은 ‘찾아온 노년: 송금해버린 청춘’, ‘노년과의 만남: 이방인’, ‘받아들이는 노년: 가슴에 묻는 고향’의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 1. 찾아온 노년: 송금해버린 청춘

#### 1) 독일잔류 선택하기

고국이 어렵던 시절, 언어와 문화가 낯선 나라에 발을 디딘 파독간호사들은 3년 첫 계약이 만료 될 즈음 대부분 재계약을 제안 받았다. 환자에게 다정하고 일에 있어서 근면하며 성실했던 이들은 언어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어디서나 환영을 받았고, 인력이 부족했던 독일정부로서도 이들을 포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간호사들이 독일잔류를 선택했다. 당시 한국은 여자가 취직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웠으므로 돌아가서 직장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임금격차가 10배에 달했던 독일의 근로조건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큰 이유였다.

특히 한국 간호사들이 근면하고 착하고 또 친절하고 그래서 독일사람 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대부분 벌어서 보내는 돈이 집안을 일으키고도 남을 돈이니까, 그 걸 버리고 돌아갈 수가 없었죠! 체류연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버리고 한국가면, 한국 가서 일자리가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일단 그렇게 엄청난 임금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더 있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서로서로 우리 같이 남는 거다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잡았지요.

정말 내가 벌지 않으면 어떻게 살았나싶게 집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독일로 가겠다고 마음먹고 나왔거든요. 월급타면 진짜 최소한으로 쓸 돈만 남기고 다 한국으로 부쳤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별천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 저절로 다 부치게 되더라구요.

#### 2) 낯선 땅에서 한국식으로 자녀키우기

이렇게 시작된 독일잔류선택은 결혼적령기와 맞물려 결혼과 가정을 꾸미는 일로 이어졌다.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배우고 자랐던 어머니 역할을 기억하는 대다수의 파독간호사들은 독일사회에서도 한국의 어머니를 그대로 재현하며 가정과 아이들에게 충실했다. 그러나 독일식 사고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한국식으로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엄마들은 자신에 대한 건 잊어버리고 가족에게 헌신적이 되죠. 왜 있잖아요? 한국 엄마들 그런 거! 여기도 그래요.

저 나름 최선을 다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또 제가 자란 곳이 한국이고 한국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한테 해주었던 것이 제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여기는 또 독일이니까 독일애들 자라는 식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많이 듣고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이들 돌보느라고 평생 밤 근무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 3) 독일인 남편과 살아가기

독일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고 접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화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생일은 어떻게 하는지, 선물은 어느 정도가 실례가 되지 않고 적절한 것인지, 결혼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독일식으로 보고 배운 적이 없는 한국여성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힌다는 게 끝없는 어려움으로 느껴졌다.

남편 식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처음 결혼해서는 이 사람들 문화를 정말 몰라서 당황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생일파티, 티파티, 디너파티, 가든파티 뭐 파티하나만 해도 식이 다 다르고, 음식부터 상차림부터 초대하는 방식부터... 한국서 살면 우리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들 있잖아요? 언어와 문화를 익힌다는 게 결국 끝이 없구나 생각해요.

#### 4) 텅 빈 집에 남겨진 부부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아이들이 떠난 텅 빈 집에 남편과 둘만이 남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충격이었고 놀라움이었다. 은퇴는 눈앞에 있었고 노년의 시간이 문 앞에

와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나이가 됐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신기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곧 은퇴할 시간이 다가오니깐 내가 벌써 이럴 나이가 되었나 그런 생각...

애들 다 키워서 내보내고 그래서 조금 한가해진 것 같다 싶었는데 보니까 우리 두 노인만 남아 있더라고요. 은퇴가 눈앞에 와 있는데...

## 2. 노년과의 만남: 어디서나 이방인

### 1) 독일아이가 된 자녀들

가족과 직장생활로 항상 모자라던 시간이 넉넉해졌지만 바쁜 일상이 줄어들면서 갖게 된 여유는 오히려 우울에 빠져들게 했다.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숨차게 달려와야만 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도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왜 곁을 떠나고 없는지 과거를 돌아보며 눈물 속에 지냈으나 마음 나누고 싶은 자녀들은 어느새 살갑게 다가서는 한국아이가 아니라 말도 붙이기 어려운 독일아이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인생은 다 지나간 거 같고 내가 이런 게 뭐가 생각되고, 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몸을 바쳐서 살았다... 지금 다시 살라하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많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은퇴하고 한동안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 애들은 졸업하고 독립하고, 아! 물론 주말에 열심히 전화하고 찾아오고 하지만 대체로 독일애들 식처럼 어느 정도 선을 긋죠. 그것 때문에 울고 속상해하는 사람들 많지만 어쩔 수 없죠!

### 2) 점점 커지는 고향 생각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독일식 음식과 문화보다 한국적인 것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다. 남편이 한국인인 경우는 이러한 변화를 어느 정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나 독일인과 결혼한 경우는 혼자 겪어내야 하는 고

통이 되었다. 틈나는 대로 한국간호사들의 모임에 달려가서 아쉬움을 채워 넣었다. 그곳은 항상 고국의 말과 음식이 풍성했고, 그래서 거리와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모여들었다.

점점 한국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 같아요. 한국 사람들 만나다고하면 다들 신나서 준비해요. 한국인들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거든요. 장소를 빌려서 아들손자며느리 정말 다 끌고 나와서 한국말로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죠. 고국을 떠나 아무리 오래 되어도 아니 오히려 오래돼서 나이가 먹어 가면 더 고향 생각이 나요. 절대로 그 나라 사람이 되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국드라마, 한국말, 한국음식이 점점 더 그리워져요. 저만 그런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 점에서는 한국 사람끼리 결혼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해요. 함께 한국 음식 해먹고 같이 한국드라마 빌려다 보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우리 같이 독일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그게 어렵죠. 저 혼자 한국드라마 보면서 가능하면 남편 없을 때 한국음식 싹껏 먹고...

### 3) 마음 불편한 고국방문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고향방문으로 이어졌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젊은 시절 떠날 때 남겨두고 간 고국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안쓰러웠었는데, 오랜만에 찾은 고향은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풍요로운 모습이 되어있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을 때 고국에 남겨둔 어려웠던 가족과 친지들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곤 했는데 인내했던 그 세월의 무게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한국에 있는 내 가족도 이제는 다 자리잡고 잘 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독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여유있고 더 잘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한국여성들은 안 그런 것 같고, 예전에는 한국에 가면 독일이 훨씬 잘 살고 있으니깐 내가 독일에서 일을 하고 고생을 한다 해도 그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한국에 가도 내가 힘들게 독일서 산 세월이 보상이 안 된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이게 아닌데 여기가 한국인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속상하기도 해요. 서울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죠. 우리 머릿속에는 독일로 떠나올 때 그 당시 한국이 그대로 멈춰서 변화를 안해서 그렇다구요.

#### 4) 어디서나 이방인

기억속의 한국과 변해버린 고국 사이에서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국에 오면 마음은 편안했다. 장기적인 체류는 독일에 남겨져있는 가족들 때문에 어려웠으며 시간이 지나면 독일이 그림기기도 했다. 이런 방문이 이어지면서 한국과 독일, 어느 곳에서도 이방인이 되어버린 자신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문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압담했다.

여기서는 또 완전히 독일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아니고, 한국에 가도 뭔가 아닌 게 있고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면 너무 허망하고 힘드니까!

어쩌다가 서울을 가면 한 달 정도 있으면 독일 오고 싶어져요. 어디 가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게 우리 운명 아닌가 생각해요. 어디서도 이방인 같은 거...

### 3. 받아들임의 노년: 가슴에 묻는 고향

#### 1) 치매와 함께 사라진 독일

이제 그들은 시간이 더 흘러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노후의 끝은 어떻게 될까하는 고민을 한다. 40여년을 독일에 살면서 독일 말을 했었지만 치매에 걸리면서 한국어만 기억하는 한국 간호사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현재를 잃어버린 노인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또한 돌봐 주리라 기대하는 것으로 해답을 찾는다.

독일서 간호사를 그렇게 오래하신 분인데, 40년을 독일 말을 했는데, 치매가 오면서 독일어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가 있는 병원은 독일 환자들하고 간호사들인데, 완전히 정말 완전히 독일어를 잊어버려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한국말만 하

고, 한국음식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보고 오신 분들이 기가 막혀서 다들 충격이었죠!

#### 2) 노년에 겪는 문화충격

독일에서 살아온 세월이 한국에서의 삶의 두 배가 넘었는데도 고국으로 향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으로 역이주를 단행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에는 많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 무엇보다도 독일에 남겨지는 가족과의 헤어짐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남편이 독일인인 경우는 본인이 젊어서 겪었던 문화적 충격을 노년의 남편에게 겪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족이 모두 여기가 터전이잖아요? 저만 한국을 그리워하죠. 여기에 내 남편, 아이들, 손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좋자고 서울로 가겠어요?

제가 20대에 문화충격을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이제 은퇴해서 한국에 간다면 우리 남편은 어떻게해요? 젊지도 않은 나이에 문화충격을 겪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엄마가 이제 은퇴해서 한국가고 싶으니까 갈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애들 생활터전도 여기고... 결국은 일년이나 이년에 한번 정도 한국에 잠시 나가서 지내다가 오고 그러면서 생활은 독일에서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 3) 건강을 향해 함께 걷기

고국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실현될 수 없지만 그리움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쉬움은 고국을 잠시잠깐 방문하는 것으로 달래기로 했다.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모임을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운동을 한다. 체중조절도 신경쓰면서 최대한 길게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이면서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고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한국에 다니고 그러려면 몸이 건강해야지 하고 열심히

히 건강조심들을 해요. 걷기대회가 있는데 아침 8시에 모여서 함께 두 시간 가량 걷는 거예요. 걷는 게 노인들에게 참 좋다고 해서...

#### 4) 삶의 의미 다시 찾기

삶에 쫓겨서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삶의 단계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었다. 그 결정의 순간에 미처 준비되지 않았기에 등 떠밀리듯이 여기까지 왔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 없지만 현재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며 외국으로 직장을 찾아 나가는 후배 간호사들이 긴 세월을 타국에서 살아낸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긴 안목으로 삶을 준비하고 선택하기를 전하고 싶어 했다.

시기를 놓치면 그대로 뿌리를 내려야 해요. 직업을 갖고 결혼도 하니깐 더욱더 한국으로 갈수가 없죠. 오래 머무는 것이라면 미리 많은 것을 따져보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필요하죠.

장기적으로 살기로 한다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의 양육제도, 노후제도 그런 것도 따져보고 결혼은 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자녀출산과 내가 어디에 어떻게 머물 것인가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 논 의

1960년대와 70년대에 독일로 향했던 파독간호사들은 이미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목전에 둔 나이들이 되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환경과 삶의 적응에 성공했고, 독일에서의 삶이 한국에서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편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왔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어려움을 잘 견디고 성공적으로 독일사회에 뿌리를 내린 집단적 이주였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도전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두려움과 외로움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고 놀라와했다. 인터뷰는 그들 자신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했으며 무엇보다도 타국에서의 노년의 삶이라는 절실한 당면문제를 표면으로 끌어냈다. 파독간호사들은 가정과 사회를 통한 역할 모델(role

model)없이 나이 들어감의 과정을 겪고 있었으며 여전히 문화충격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독일거주 간호사의 나이듦의 과정으로 이해된 찾아온 노년, 노년과의 만남, 받아들임의 노년의 단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등에 업고 노년이 찾아왔으며, 고국으로 송금해버린 청춘대신 찾아온 노년과의 만남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바쁜 일상이 줄어들면서 갖게 된 여유는 ‘우울’함을 잉태하고,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당황스럽고 고민과 불안 속에서 나이듦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연구의 참여자들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의 기능이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은퇴에 즈음해서 자녀들의 독립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충격’, ‘외로움’, ‘우울’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힌 연구(Kim & Baik, 2003; Kim, Lee, & Oh, 2001)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Kim (2007)은 은퇴와 함께 진행되는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 및 근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노년층이 구분되어지고 타사회 집단과 격리되어짐으로 인해서 은퇴로 인해 인간적 고통이 심화되어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나이듦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현대인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취업 간호사들의 나이듦에는 다름이 있으며 파독간호사이기 때문에 겪어야했던 특별함이 있다. 우선 찾아온 노년에 허무함과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송금해버린 청춘, 눈물 속에 지낸 세월을 기억해냈다. 스무 살을 겨우 넘긴 나이로 가난했던 고국을 뒤로하고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을 향해 떠났던 용기 속에는 가족과 형제의 삶까지 짊어지고 가야했던 젊은 날의 슬픔이 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독일을 선택했다고 하였으며 최소한의 쓸 돈만 남기고 월급의 90%를 고국으로 송금한 참여자도 있었다. 따라서 3년 첫 계약이 끝나고 독일병원들이 재계약이 가능해지자 그들은 대안이 없는, 선택 아닌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회고한다. ‘파독간호사 45년의 역사를 묻는다’의 정책 세미나(2009)에서 연사로 나왔던 남해마을 거주자도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가족부양과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위해 독일로 간 경우가 많았으며 나라가 잘살고 부강했다라면 20대의 젊은 청춘들이 독일에서의 희생을 선택했겠는 가라고(Seok, 2009) 반문하였다. 또한 남해마을로 역이주한 파독간호사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한 Lee와 Park (2006)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동기가 73.9%, 선진국 견학이

17.4%로 경제적 이주가 매우 높게 나왔다. 1965년에서 1975년까지 파독광부·간호사가 고국으로 보낸 송금액이 총 101,530천 달러였으며 1965~67년의 송금액은 당시 우리나라 총 수출액 대비 각각 1.6%, 1.9%, 1.8%로써 한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데(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2009) 이는 파독간호사들의 송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달했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독일행을 선택한 이유에는 경제적인 도움 외에 서구문명에 대한 동경이나 해외경험 등 문화의 체험도 있다. Kwon (2011)의 파독간호사 155명을 대상으로 한 파독지원 동기에 대한 설문에서 대상자의 43.2%가 해외경험을 갖기 위해서로 응답함으로써, 가족 부양 20%를 훨씬 능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늘날 고학력 여성들의 해외취업 동기가 해외생활에 대한 호기심이나 도전 의식, 장기간의 해외거주 경험 및 장기적으로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등에 의해 해외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Kim, Shin, Park과 Han (200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파독지원 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연구방법의 다름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특히 연구시점이 출국당시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가 있는 그대로의 과거이기 보다는 현재에서 바라보는 과거라는 시간적 개념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의 젊은 날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남성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다. 특히 한-독 커플이 경험하는 미묘하고 내밀한 문화적 차이는 에둘러 말하거나 의례적 표현 그리고 무언의 의사소통이 개입되지 못함으로써 오는 정확한 언어적 표현의 어려움과 특히 독일서 성장한 자녀를 둔 경우는 외모와 상관없이 내면은 '독일아이'가 되어있음으로 인한 한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Kwon, 2011). 뿐만 아니라 한국 간호요원의 대부분이 서독에 발을 디딜 때 독일어를 거의 한마디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일부는 한국에서 한 두 달간 독어회화과정을 이수했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파독 간호요원의 82.8%가 독일 도착 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언어를 끊고 간호활동 중 가장 곤란했던 점의 68.8%가 언어소통의 불편을 들었다는 점(Kim, 1975)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 직업인들을 파견함에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선임자의 조언도 없는 곳에서의 개척자적 삶을 이끌어야했던 것이다(Lee & Park,

2006).

둘째로 노년과의 만남은 독일에서도 한국에서도 자신들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바쁜 일상이 줄어들면서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자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졌다. 독일식으로 큰 자녀와 외국인 남편은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이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파독간호사중 74.8%가 한국으로의 귀국에 부정적이며, 그 이유는 자녀문제가 43%, 경제활동이 11.6%, 그리고 결혼생활이 8.1%인 것이다(Lee,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중상 계층으로서 경제적 안정을 포기하고 남해마올로 역이주를 감행한 파독간호사들은 과거 3~40년 전에 독일에서 겪었던 문화충격을 다시 경험해야 할 만큼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되어 있으며 낯설다고 했다. 심지어 남해마올로 역이주한 파독간호사는 '독일에서 돌아올 때는 많은 꿈을 가지고 왔는데 모두 남해마다에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움을 달래려고 애써 시간과 돈을 들여 고국을 방문해도 조국의 발전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허무감, 박탈감, 일종의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었다(Kim et al., 2009; Kwon, 2011). 한편,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고국의 가족들로 하여금 집을 사고 사업을 하도록 도왔기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는 최저생활비로 생활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었다. 결국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리운 고국을 찾아보지만 세월과 변화 속에 남아있는 고향은 낯설기만 하고 독일에서의 나이들도 역시 뿌리와 문화가 다름에서 오는 거리가 있어 기억속의 삶에서나 현재의 삶에서 모두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받아들임의 노년은 독일에 뿌리를 내렸다고 믿어지는 4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문화충격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와 문화가 바뀌면서 겪은 초기의 문화충격보다는 본인들의 놀라움이 다소 약화되기는 했으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곤란을 겪고 있다. 문화란 특정 지역 내에서 축적된 지혜이며 공동체를 이루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똑같이 품고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그 사회 고유의 특성이므로 생활의 기본이지만 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과 의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마음과 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Pinker, 2002). 사회 안에서 경험하는 것을 익히고 배우는 인간의 특성 상 고령화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세대들의 겪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차분히 느끼고 준비할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파독간호사들은 사회적 학



습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은퇴를 앞두고거나 은퇴에 들어선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으며 문화습득 또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파독간호사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해외인력수출의 신호탄이었다. 이들이 비록 개인적 이유에서 독일행을 선택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충분한 준비없이 보내졌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는 파독간호사였던 Kim (2004)이 ‘나는 간호사로서 직업의식은 있었지만 직업은 단지 선택이었고 내 정체성의 일부분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위기는 차치하고 서라도 인간발달단계에 따르는 위기로 야기되는 문화충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전문직의 해외진출 1세대인 파독간호사들의 나이듦을 살펴봄으로써 일차적인 작업장에서의 적응과 더불어 노년에 이르는 마음의 준비까지가 왜 필요한지를 숙고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은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후배 간호사들에게 유익한 역할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재독 간호사들의 현지실태를 심도있게 조사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입안을 제안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 세계적인 간호사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간호사의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고 선진 국가들로의 해외취업이 활기 찬 현 시점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해외로 취업한 간호사들의 나이듦 과정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반구조적 형식의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개인 심층면담을 Agar (1980)의 분석단계에 따라 분석한 문화기술지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해외취업의 선구자인 파독간호사 중에서 현재까지 독일에서 살고 있는,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파독간호사 10명이며, 자료수집은 2010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본, 뮌헨 및 함부르크 등 4개 도시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파독 간호사들의 나이듦의 경험은 ‘찾아온 노년: 송금해버린 청춘’, ‘노년과의 만남: 어디서나 이방인’,

‘받아들임의 노년: 가슴에 묻은 고향’의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찾아온 노년’은 독일에 남아 낯선 땅에서 한국식으로 자녀를 키우며, 문화가 다른 독일인 남편과 살아가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떠난 텅 빈 집에 남편과 둘만이 남은 것을 발견하는 충격과 놀라움이다. ‘노년과의 만남’은 자녀들은 독일식으로 커버리고, 고국의 말과 음식이 점점 더 그리워지게 되고 고국을 방문해도 마음이 불편해져, 한국과 독일 어느 곳에서도 이방인이 되어버린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또한 ‘받아들임의 노년’은 고국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노년에 다시 겪게 되는 문화충격의 두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로 고향을 가슴에 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외취업을 꿈꾸는 많은 후배 간호사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바람직한 노후와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Agar, M. H. (1980). *The professional stranger*. Orland: Academic Press, Inc.
- Buchan, J., Parkin, T., & Sochalski, J. (2003). *International nurse mobility,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WHO/EIP/OSD 2003.3).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Cho, Y. D. (200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institutional settings*. Seoul: Kyoyookbook
- Choi, Y. Y. (2008). A study on the image changes in Korea for the German immigrant. *German Culture Research*, 17(1), 305-323.
- Hong, K. J., Yoon, S. N., & Kang, C. H. (2004, 11/12). A study on the Korean nurses' overseas employment status and competence. *Korean Nurses Association Webzine*, 43(5), retrieved from [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pdf/kornur\\_20040910.pdf](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pdf/kornur_20040910.pdf)
- Kim, H. S., Hong, S. W., & Choi, K. S. (2009). Recapturing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Korean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in the 1960s and 1970s. *Korean Academic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8(2), 174-184.
- Kim, J. J. (1975). An exploratory study for ways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of Korean nursing personnel in West-German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24-35.
- Kim, K. B., Lee, K. H., & Oh, H. K. (2001). Elderly women's grie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6), 1021-1033.
- Kim, N. H., Shin, S. M., Park, S. J., & Han, J. S. (2007). *Supporting project and policy for educated women's over-*

- seas employment*. Seoul (2007 report-1).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im, O. S., & Baik, S. H.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loneliness,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 in elderly Kore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3), 425-432.
- Kim, S. I. (2004). The story of Korean nurse to Germany about her life as an migrant worker. *Labour Society Bulletin*, 90, 62-66.
- Kim, T. H. (2007). *Gerontology*. Seoul: Kyomoonsa.
- Kim, Y. C. (2007). *Korean women workers'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of women's organizations: Focusing on German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Korea.
- Kwon, S. I. (2011). The Migration experiences and livings of Korean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In Lee, A. J., Kwon, S. I., Do, M. H., Jeong, G. S., Eun, Y., & Kim, D. O. (Eds.)(2011). *Final report for evaluating project about Korean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pp 21-62). Seoul: Malgeun Publishing.
- Lee, A. J., Kwon, S. I., Do, M. H., Jeong, G. S., Eun, Y., & Kim, D. O. (Eds.)(2011). *Final report for evaluating project about Korean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Seoul: Malgeun Publishing.
- Lee, S. A. (2008). Theoretical research on the otherness of female migrants and interaction of tolerance: With the case study of Korean female migrants in Germany. *Korean Society for Social Theory*, 12, 73-107.
- Lee, Y. S., & Park, J. H. (2006). A study on the re-migrant and homecoming sense of Korean migrants in Germany. *Koreanische Zeitschrift für Deutschunterricht*, 36, 443-480.
- Na, H. S. (2009). What made Korean nurses move to West Germany during 1960-1970?, *The Western History Review*, 100, 255-285.
- Pinker, S. (2004). *The blank slate: The modern denial of human nature* (Kim, H. Y., Trans.). New York, NY: Penguin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Seok, S. J. (2010) Hope for re-evaluation of nursing project to German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conducted by assemblywomen. Lee, Ae Joo, *Questions for the 45 year history of Korean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Seoul, Korea.
- Song, J. H. (2006). Globalization and overseas job for nurses. *Journal of Nursing Query*, 15(2), 18-34.
- Stewart, A. (2003). *The Ethnographer's method*. London: Sage Publisher.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2009, March 19). *Miners ·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and their contribution to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he second half report of 2008(1). Retrieved August 1, 2011, from [http://www.Jinsil.go.kr/Information\\_Notice/report/index.asp](http://www.Jinsil.go.kr/Information_Notice/report/index.asp)